

한·캄보디아 경제인 오찬간담회 연설

존경하는 훈센 총리 각하, 콧땡 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양국 경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처럼 반갑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환영의 말씀을 해 주신 총리 각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은 양국 관계 역사에 뜻깊은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사이에 정상 간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졌고, 이 자리에 계신 훈센 총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양국관계가 복원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두 나라 간 교역이 3배, 한국의 캄보디아 투자는 6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수준 또한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에 비해 앞으로의 10년은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캄보디아 경제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4년 10% 성장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3.4%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WTO 가입 이후 훈센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양국의 산업구조 특성과 서로의 장점을 잘 조화시켜 나간다면

면 교역과 투자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봉제와 같은 노동집약형 투자 이외에 농가공 등 자원활용형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첨단 제조업까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공동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여기에서도 투자활성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역불균형 문제도 점차 개선될 것입니다. 무역역조는 이곳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수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심화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무관세 적용품목의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구매사절단과 같은 민간 차원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저는 교역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멀리 보면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양국 정부가 '지방행정전산망 구축사업 시행약정'에 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의 공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과의 IT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인터넷 청년봉사단'과 'IT인력 초청 연수'를 비롯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인력송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 젊은이들이 보다 안정된 여건에서 일하면서 캄보디아 경제 발전과 우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증시 설립을 위한 협력약정'도 캄보디아의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과 두 나라 간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밖에도 전력과 건설사업, 유전과 광물자원 개발, 관광 분야 등에서 모범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훈센 총리 각하,

그리고 캄보디아 경제인 여러분,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늦게 출발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그러나 맨주먹으로 출발해 오늘의 경제를 이뤄냈습니다. 자본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생생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기업인들은 그러한 발전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해 왔습니다. 또 이미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의 미래에 큰 희망을 걸고 이곳에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크게 성공해서 더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이곳을 찾고 캄보디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와 기업인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정부도 유·무상 협력을 비롯해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성공이 한국의 성공이 되고, 한국의 성공이 캄보디아의 성공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